# 독자의 시간과 공적 권한의 경계

RSS 심층 독해 · 2026년 11월 9일(월) 게시분 · 11월 10일 작성

> 승인 피드 21곳 중 20곳 수집 성공. EerdWord는 서버 연결 끊김으로 실패(403 접근 거부가 아닌 전송 오류, 이틀 연속). 전날 항목 27건: 텍스트 26건은 수집 본문 끝까지 읽었고 사진 게시물 1건은 텍스트가 없음을 확인했다. 분석 9건, 생략 18건. 보류 6곳: 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 Leiter Reports는 11/8 403 확인 상태로 미수집. 11/11 표준 방식 1회 재확인 예정.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에 더 귀해지는 것은 읽는 사람의 시간이다. 공공 영역에서는 정보 처리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중요해진다. 이번 독해는 AI 설명문의 편집, 전력망 허가, 자동 미디어 감독을 중심으로 그 두 문제를 살핀다. 아래 [사실]은 원문이 무엇을 보도하거나 주장하는지를 정리한 부분이며, 모든 주장을 독립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해석]은 그 의미와 한계를 따로 논한 부분이다.

## AI가 쓴 긴 설명에서 사람이 책임질 한 문장

**[사실]** 사이먼 윌리슨은 인공지능(AI)이 만든 코드 변경 설명을 없애는 대신 접어 두는 방식을 제안한다. PR(pull request)은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제출하는 묶음이다. AI는 문제, 해결 과정, 시험 결과를 빠짐없이 쓰지만, 읽는 사람은 그 긴 설명을 보는 순간 검토를 미루기 쉽다는 것이 그의 경험이다. 해법은 맨 위에 사람이 고른 짧은 도입부를 두고, AI의 상세 설명은 클릭하면 펼쳐지는 HTML의 details·summary 요소 안에 넣는 것이다. 깃허브에서도 이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해석]**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자 수보다 책임의 위치다. 도입부까지 반드시 사람이 직접 타이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AI가 이미 쓴 문장 가운데 골라도 되지만, 무엇이 독자의 시간을 쓸 만한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상세한 검증 기록은 보존하면서 첫 화면에는 변경 목적과 영향만 드러내므로, 설명의 양과 검토자의 주의력을 분리할 수 있다. AI가 문서 생산 비용을 낮출수록 독자의 읽기 비용은 더 중요한 병목이 된다. 이 글은 정확한 설명과 읽히는 설명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출처: SimonWillison · https://simonwillison.net/2026/Nov/9/details-summary/

## 송전선 하나에 여러 주가 거부권을 가지면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은 주 경계를 넘는 송전선의 허가 구조를 비판한다. 피드 본문에 따르면 미국의 천연가스 관로는 연방 차원의 허가로 주 경계를 넘을 수 있지만, 송전선은 지나는 주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자는 리스코·샤피로·윌리엄스의 연구를 소개하며, 1947년 가스 관로에 대한 주정부 거부권이 사라진 뒤 연간 건설 길이가 거의 여섯 배로

늘었다고 전한다. 이는 이 보고서가 해당 논문을 독립 재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블로그가 인용한 연구 결과다. 글은 캐나다 수력 전기를 들여오려던 매사추세츠의 계획이 통과 지역의 반대에 부딪힌 사례도 든다.

**[해석]** 전기가 싸게 만들어지는 곳과 많이 필요한 곳이 다르면, 발전소만 늘려서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선로를 놓을 땅은 어떤 주가 제공하고 값싼 전기의 혜택은 다른 주가 누리는 구조가 협상을 막을 수 있다. 다만 과거 가스 관로에서 얻은 건설 증가율을 오늘의 송전망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토지 수용, 환경 영향, 비용 분담도 다르기 때문이다. 글에 등장하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승인 권한 확대 법안은 필자의 소개 시점에 논의 중인 제안으로 읽어야 하며, 통과되거나 시행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 항목은 기존 원칙에 따라 피드 본문만 인용한다.

출처: MarginalRevolution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end-the-state-veto-on-power-lines.html

## 공급망 위험은 시장이 덜 보는가, 정치가 더 잘 보는가

**[사실]** 카페 하이에크의 도널드 부드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서로 다른 두 기고를 대비한다. 한쪽은 시장이 공급망 위험을 과소평가했으므로 전략 산업에 정치가 자본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시장보다 더 많이 안다고 자신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부드로는 후자를 지지한다. 시장에서 위험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의 가격이 잘못 매겨졌다고 결론 낼 수 없으며, 정치인과 관료가 더 나은 자본 배분을 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주장이다.

**[해석]** 이 논점이 중요한 이유는 산업정책 논쟁에서 서로 다른 질문이 자주 섞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수익을 기준으로 선택한 결과가 국가 안보에 충분한지와, 그 선택이 기업 관점에서도 잘못된 것인지는 별개다. 글은 대안의 성적표까지 비교해야 한다는 유용한 기준을 주지만, 국가 안보 비용처럼 시장 거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손실을 어떻게 측정할지까지 풀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장은 늘 옳다는 증명보다, 정부 개입에도 입증 책임이 있다는 짧은 반론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출처: CafeHayek · https://cafehayek.com/2026/11/markets-or-politicians.html

## 독일의 AI 미디어 감시를 둘러싼 권한 논쟁

**[사실]** 노르베르트 헤링은 튀링겐 주의회 미디어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의 장문과 요약본을 함께 공개했다. 여기서는 장문 한 건을 분석하고 요약본은 중복으로 셌다. 그의 비판 대상은 미디어 관련 주간 협약 개정안의 제109a조다. 글에 인용된 조문은 텍스트·이미지·음성·동영상에서 위반 가능성을 자동 탐지하는 기술 사용을 다룬다. 헤링은 이것이 기존 AI 도구 KIVI의 사용에 뒤늦게 법적 근거를 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감독을 시민 발언의 광범위한 추적으로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의견서는 헤링이 받은 헤센 미디어당국의 정보 공개 답변을 근거로,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게시물도 평가 목적으로 3개월 보관된다고 전한다. 그는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며 즉시 삭제 의무, 정보 전달 대상 기관의 제한, 언론의 주의 의무를 AI로 감독하는 일의 금지를 권고한다. 이때 위법성 판단은 헤링의 법적 주장이지 법원이 확정한 결론이 아니다. 의견서에는 당국이 KIVI를 청소년 보호 규정 위반 탐지에 쓴다고 설명한 내용도 함께 실려 있다.

**[해석]** 핵심은 불법 게시물을 찾을 필요가 있느냐보다, 그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의 글을 얼마나 오래 수집하고 누가 다시 쓰는가에 있다. 자동 탐지는 처리량을 늘리지만, 사실 판정이나 언론 윤리에 관한 불명확한 기준까지 기계에 맡기면 오탐과 자기검열의 비용도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당국의 설명과 전체 법체계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없이 이 제도가 이미 불법 감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개정안·현행 운영·필자의 반대 의견을 나눠 읽어야 하는 비평 자료다.

출처: Haering · https://norberthaering.de/propaganda-zensur/lt-thueringen-lang/

## 변호인이 의뢰인의 생각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사실]** 나흐덴크자이텐의 옌스 베르거는 베를린 좌파당 정치인 아흐메트 아베트에 대한 슈피겔 보도를 비판한다. 글에 따르면 문제의 보도는 아베트가 논란의 인물을 법정에서 대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베르거는 그 일이 집회 금지와 관련된 행정법원 긴급 절차 두 건이었다고 설명하며, 대리 행위를 의뢰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동조처럼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해당 보도와 소송 기록을 별도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경위는 베르거가 제시한 설명으로 한정한다.

**[해석]** 글의 일반적 쟁점은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선다. 변호사와 의뢰인을 도덕적으로 동일시하면, 가장 인기 없고 논란 많은 사람이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워진다. 동시에 원 보도가 실제로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는 원 보도와 함께 읽어야 판정할 수 있다. 베르거가 제시한 매체 검색 건수 역시 독립 확인된 정량 분석으로 쓰지 않았다. 독자는 법률 대리의 독립성이라는 원칙과, 특정 매체가 조직적 정치 공세를 벌인다는 필자의 더 큰 주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처: NachDenkSeiten · https://www.nachdenkseiten.de/?p=158691

## 우크라이나 보호군 구상에서 빠뜨리기 쉬운 조건

**[사실]** 같은 매체의 알렉산더 노이는 우크라이나에 전후 다국적 병력을 두는 구상의 실행 조건을 따진다. 그는 폴란드에서 10개 유럽 국가의 약 2,800명이 참여하는 훈련에 관한 방송 보도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어 코소보의 과거 병력 규모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크기를 비교하고, 장기 주둔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안전보장의 신뢰성, 러시아가 서방 병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대목은 그의 추산이며, 확정된 소요 병력이나 공동 작전계획이 아니다.

**[사실]** 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조약 제5조의 원문을 인용한다. 무력 공격을 공동의 공격으로 보되, 각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지원 약속과 특정한 군사 행동의 자동 실행을 구분한다. 또한 러시아의 안보 요구와 과거 협상 문서를 길게 인용한다. NATO 확대가 침공의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은 저자가 러시아 측 입장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인과 해석이지, 이 보고서가 확정한 전쟁 원인이 아니다.

**[해석]** 휴전 뒤 보호 병력이라는 말만으로는 누구의 공격을, 어떤 권한과 교전 규칙으로, 얼마나 오래 억제할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이 질문을 앞세운 점은 유용하다. 다만 영토 면적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필요 병력을 계산할 수 없고, 러시아의 요구만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선택을 평가할 수도 없다. 이 글은 협상 조건의 충돌을 드러내는 논평으로 읽되, 훈련 사실에 관한 인용 보도와 배치 규모 추산, 침공 동기에 대한 주장 사이의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출처: NachDenkSeiten · https://www.nachdenkseiten.de/?p=158670

##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의 신학적 논리

**[사실]** 실험신학의 리처드 벡은 인간 본성이 서로 고립된 개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하나의 실재라는 관점에서 사랑의 윤리를 설명한다. 그리스도가 새로운 아담으로서 인류 전체를 품는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세 신비사상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문장을 인용해, 다른 누군가를 자신보다 덜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도 온전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논증한다.

**[해석]** 이 글의 독특함은 보편적 사랑을 단지 좋은 마음이나 도덕 명령으로 요구하지 않는 데 있다.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전제에서 윤리적 결론을 끌어낸다. 그래서 그 전제를 받아들이면 신앙의 대상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과 떼어 놓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것은 실증 연구가 아니라 특정 기독론, 곧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 이해 안의 논증이다. 종교 밖의 독자에게도 공동체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타인을 대하는 의무를 바꾼다는 철학적 질문을 남긴다.

출처: ExpTheology · https://experimentaltheology.blogspot.com/2026/11/salvation-and-unity-of-human-nature.html

## 공리주의 연구와 노동 현장의 실천 사이

**[사실]** 데일리 누스는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데이비드 라이언스의 부고를 동료 에런 개럿의 추모문으로 전했다. 추모문에 따르면 라이언스는 10월 24일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존 롤스의 첫 박사과정 제자였으며 학위논문은 『공리주의의 형식과 한계』로 출간됐다. 코넬대와 보스턴대에서 철학·법학을 가르쳤고, 권리, 법의 지배, 배상, 미국의 인종적 경계 형성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은퇴 후에도 강의를 이어가며 시간강사와 비정규 교원의 조직화와 단체협약 협상에 참여했다고 추모문은 기록한다.

**[해석]** 짧은 부고지만 추상적인 도덕철학과 제도 안의 노동 조건을 나란히 놓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사상의 영향은 대표 저서의 개념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위해 어떤 제도를 만드는가에도 나타난다. 다만 한 동료의 추모문을 학문 전체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지는 않았다.

출처: DailyNous · https://dailynous.com/2026/11/09/david-lyons-1935-2026/

## 미완의 소설을 읽으며 자기 과거를 다시 쓰기

**[사실]** 일본의 『매일 서평』은 시마모토 리오의 소설 『星のように離れて雨のように散った』를 다뤘다. 제목을 옮기면 '별처럼 멀어지고 비처럼 흩어졌다' 정도다. 서평에 따르면 대학원생 하루는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 여러 초고를 연구하면서, 어린 시절 사라진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 소설과도 마주한다. 평자는 아버지의 빈자리에 완벽한 설명이 붙는 대신, 하루가 자기 삶의 다음 부분을 스스로 써 나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해석]** 여기서 미완성은 결함의 이름만이 아니다. 겐지가 고쳐 쓴 초고,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원고, 딸이 다시 읽는 어린 시절이 포개지면서, 과거는 한 번의 해답으로 봉합되지 않는다는 독법이 생긴다. 사랑과 폭력을 손쉽게 분리하거나 타인을 구하려는 마음을 무조건 미화하지 않는다는 평자의 지적도 이 독법과 이어진다. 이는 소설 원작을 직접 평가한 글이 아니라 서평의 읽기 방식을 분석한 것이다. 원문에는 제휴 커피 광고가 섞여 있으며, 상품의 건강·효능 주장은 이 보고서에 옮기지 않았다.

출처: AzumaRio · https://books76.hatenablog.com/entry/2026/11/09/120000

## 독해 범위와 생략

생략 18건: Cafe Hayek 2건(링크 인용 모음, 베를린 장벽 기념 인용문), Crooked Timber 1건(본문 없는 사진 게시물), Marginal Revolution 4건(링크 모음·단문, 허니트랩에 관한 가설 나열, 파라과이 금융위기 2차 인용), Noahpinion 1건(대담 안내문은 읽었으나 영상·대담 전체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해 제외), Computational Complexity 1건(신간 안내 속 복잡도 이론의 최신 성립 여부까지 대조

하지 못해 분석 보류), Daily Nous 1건(온라인 자료 갱신 목록), Haering 2건(장문 의견서의 중복 요약본, 후불결제 규제의 적용 범위와 시행 조건을 독립 대조하지 못한 논평), NachDenkSeiten 4건(영상 대담 안내, 서아시아 정세 논평, 코로나 시기 언론·정치 관계 논평, 링크 모음), 매일 서평 2건(돌봄·부동산 자격시험 교재 소개와 전직 상담·상품 홍보 결합 글). 서아시아·코로나 논평은 본문을 끝까지 읽었으나 다수의 사건·증언을 별도 검증하지 않은 채 재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선정한 일반 원문 8건은 게시 페이지와 대조했고, Marginal Revolution은 피드 본문만 사용했다. 유료·영상 구간 등 전문을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발췌 분석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법률·정책의 적용 여부나 현재 전황을 확인하는 안내문이 아니라, 지정 피드의 논증을 읽고 한계를 구분한 독해 기록이다.